

## “하나님의 기준으로 성공하라”

전12:13-14

세상에는 어려운 환경들을 이겨내고 성공의 삶을 살아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그러한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솔로몬 왕이며 성경에는 스스로 전도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인생에 대하여 깊이 연구한 후에 내린 결론은 ‘사람에게 이 세상에 태어나서 바른 인도를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것이 성공과 부를 연결하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부는 성공일 것입니다. 그러나 부하다고 해서 꼭 성공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성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기준에 근거하여 사람의 본분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본분은 무엇일까요?

### 1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세상적 성취와 성공을 이루었다고 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아니라면 진정한 성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인생의 가치가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아무리 이 세상에서 성공적으로 살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그 인생은 허무한 인생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일까요? 바로 삶의 설계자는 내가 아니라 그 분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 내 것이 아닌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즉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입니다.

지금은 세상을 떠났지만 아더 디모스 장로는 미국 기독교실업인 가운데 다섯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신앙과 경영과 재력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전에는 사업을 하다가 크게 실패했습니다. 결국 그는 금식하고 기도하며 “주여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라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삶의 태도가 잘못되었다. 네 태도가 문제다. 왜냐하면 너 사업의 주인이 네 자신이 아니냐? 네가 주인 노릇하고 하나님께 자꾸 불려서 도와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무슨 심부름꾼이냐? 너의 보좌관이냐?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면 하나님이 책임져 줄 것 아니냐?” 그는 크게 깨닫고 회개하고 그 다음부터 모든 일의 계획에서부터 결재까지 주님께 의지했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겨도 주님과 의논했습니다. 점점 사업과 생활이 복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회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더니 놀라운 정도로 번창했습니다. 그는 7 자녀가 있었는데 하루의 첫 한 시간을 항상 하나님께 먼저 드리라고 자기가 죽기 전까지 28년간이나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항상 관대하게 나누주는 삶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또한 그는 사업을 운영하면서 세워 놓은 6 가지 원칙을 철저히 준수했습니다. 첫째, 주일성수하고 둘째, 하루의 첫 시간에 기도하고 시작하고 셋째, 온전한 심일조를 드리고 넷째,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돈을 주님께 드리고 다섯째,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여섯째, 사업의 모든 문제와 필요를 주님이 해결하시도록 주님께 맡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나중에 미국 CCC 회관을 짓는데 거액용

현금하고 생전에 자신의 유산을 정리해서 5,600 억원을 선교재단에 헌금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중에 “내가 망하지 않았으면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가 나중에 탐욕과 교만과 불순종에 빠질 것인데 하나님이 나를 치셔서 망하게 하므로 내가 깨닫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욕심을 버리고 교만하지 않고 순종하므로 하나님도 모시고 재물도 얻게 되었다.”고 간증하게 된 것입니다.

### 2. 명령을 지키는 삶

순종하는 삶입니다. **“(롬 10:17)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신뢰하는 삶입니다. 주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는 자기의 경험이나 기술, 지식이나 생각에 의지하지 않고 주의 말씀에 의지했습니다. 그의 할 일은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보스러울 만큼 하나님의 약속에 우직하게 목숨 거는 사람들을 축복하십니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순종할 때까지 훈련시키십니다. 실패를 경험하여 고난과 환란을 지나게 하십니다. 실패를 경험해 보면 순종하게 됩니다. 성경은 모세를 온유한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모세가 처음부터 온유한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분노를 절제하지 못해 애굽 사람을 쳐죽였습니다. 그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실패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행동과 실패는 존재합니다. 실패와 성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온유한자가 되어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다윗도 **“(시 119:71)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시험 당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면 안됩니다. 당연한 것으로 여길 필요가 있습니다. 마귀가 살아있는 이상 시험은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은 우리의 부족과 약함을 보완하는 양약이 될 때가 많습니다. **“(약 1:2-4)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앎이라**

##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마귀의 다양한 시험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타협하고 절충하는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순종의 자세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평안과 진정한 복을 경험할 것입니다.

### 3. 감사하는 삶

사람을 만나 이야기 하다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쉽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은 만족이 없기에 감사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범사, 즉 큰 것이나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Master of Influence 라고 하는 상이 있습니다. 이 상은 좋은 영향력을 많은 사람들에게 끼친 인물에게 주는 명예로운 상입니다. 이 상을 받은 사람 중에 '지그 지글러'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동기부여를 통한 성공학의 대가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도 성공적으로 살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도 주었습니다. 그는 75 세에 자신의 일생을 돌아보면서 자서전을 썼습니다. 그 자서전의 마지막 결론 부분에 한마디로 간추려 말하기를 "모든 것은 감사뿐이었다. 감사 외에 다른 할 말이 없는 그러한 일생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자신은 혼자서 살아가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천사가 나를 늘 지켜주셨다' 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족들에게 특별히 감사했습니다. 그 딸과 그 부인과 자녀들에 대해서 '참으로 고마운 분들이었다. 나를 참으로 행복하게 해준 귀한 동반자였다'고 감사했고 그 다음에는 그 이웃들,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은 참으로 좋은 사람들이었다. 참으로 내게 고마운 분들이다. 감사하고, 감사 외에 다른 말이 없다' 그렇게 그의 인생을 결론짓고 있습니다. 그는 선한 영향력은 감사의 삶에서 나온 열매였던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환경에 상관없이 감사하지만 불평하는 사람은 환경에 상관없이 찾아가며 불평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는 떨어지는 낙엽을 보고도 감사하고, 낙엽을 밟으면서도 감사하고,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도 감사하고, 물 한 모금에도 감사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은 사도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쓰면서 말씀 하셨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아픔도 감사하고, 나음도 감사하고, 성공해도 감사하고, 때로는 실패를 해도 감사하라. 이 것이 곧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1 장에는 살아 있는 것에 대해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살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일어나 운전을 해서 예배를 위해 올 수 있습니다. 아침에 찬란한 태양도 볼 수 있습니다. 전화도 합니다. 친구도 만납니다. 이런 모든 것을 내가 살아 있기에 누리며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기억하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사시기 바랍니다. 용서하고 용납하고 욕심내시 마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 있는 동안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를 주시면서 올해는 전도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전도자는 우리에게 이세상은 무대라고 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나 단 한번의 인생을 가장 가치 있는 것에 투자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적으로도 옥수수 한알을 심으면 250 알 정도의 옥수수 2-3 자루를 수확한다고 합니다. 즉 한알을 심으면 500-750 개를 수확하는 셈입니다. 영적 농부인 우리는 잘 심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 심는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 때문에 현실적 손해를 감당해나가는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역설의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구원의 진리를 붙잡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로 믿기만 한다면 그 사람은 자기 인생을 건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할 수 있는 대로 젊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많은 연단을 받아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씩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월이 지나면서 지혜로 변하고 습관으로 변하여, 뒤돌아보면 자신의 삶이 어마 어마한 인생으로 성장한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복을 올 한 해와 평생토록 풍성하게 누리시는 모든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 나눔의 시간

1. 이번 주 설교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이었으며 내가 적용한 것은 무엇입니까?
2.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 예수 믿고 난 이후 변화된 '주권 이양'의 구체적인 사례들을 나누어 주십시오.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삶으로 살아가게 된 계기나 구체적인 사건들)
3.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당장의 현실적인 손해로 여겨졌지만, 결국에는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삶 속에 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들을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4. 가정과 직장(사업)과 교회 등에서 감사할 조건을 적어보고 각자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5. 2015 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개인적으로) 영적인 투자를 아끼지 않기로 한 영역들은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적어보고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영적인 투자(심기)를 위해서 개인적으로 희생할(감당할) 부분은 어디인지도 나누어 주시고, 그 부분들을 믿음으로 감당해 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